

6월국회 개회 여야 일정조율 난항

사개특위·기재위, 한국당 불참 속 '반쪽 회의' 개최해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 이어질 듯

6월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여야가 일상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는 당분간 공전될 상황이다.

의회 형식의 경제위원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실정 프레임'을 의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한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당이 당초 검찰총장 및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발판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이 점쳐졌으나, 이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가 6월 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김현준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개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합의 없는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야 간 합의로 소집된 기재위에는 '원내지도부 방침에 따라 불참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전달됐다.

민주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0일 이날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주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상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3당 원내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 브리핑

"김치 종주국 위상 찾도록 적극 노력"

황주홍, 김치 내수·수출 활성화 정책세미나

민주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치의 소비 감소, 김치 수입 증가 등 김치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황주홍 의원은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인 김치 내수시장 활성화 전략"이란 발제문을 통해 '국산 김치의 설 땅은 과연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내수시장의 변화, 정부의 대응 방안, 김치업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유병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사업처장은 '김치 수출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식의 세계화로 한국산 김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엔저나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김치만한 것이 없다"며 "김치 종주국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보고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정인화, 공무원노조 감사패 받아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환경 개선 공로

민주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시간선택제 본부(이하 공무원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 의원이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근무시간 확대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노고를 기리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질의를 통해 세계적 추세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무시간 확대라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무시간 확대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공로를 기리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장시간 근무를 함에도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해찬 "여력 있으니 확장 재정 운용해야"

경제장관들에게 "국가채무비율 하향조정 감안"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찬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오찬 종료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간 것을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열렸으니 추경까지 해야 한다.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함 지진 예산 1,500억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한국당이 지금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추경 심사는 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산업단지 편의 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대한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게 단속 스케줄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혁신위' 출범 놓고 신경전

최고위 의결 무산... 갈등 장기화 우려

바른미래당 내분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계파 간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대한 혁신위 체제' 합의로 일단락된 듯한 당내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한 달 가까이 끌어온 혁신위 구성 논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 구성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최고위는 이날 혁신위 설치를 위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회의에는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았고, 새 규정 마련과 관련한 이견만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준비 절차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합의의 틀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대한 혁신위원장 내정자의 당무감사위원직선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혁신위 구성 논의는 더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와 관련해 비공개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대한당무감사위원장은 혁신위원장에 정식 임명되기 전에 당무감사위원직 사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댐)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좋음.공기좋음

※ 전면도로 18m 접합.(국도12m접)
(전원주택,물류창고,사무실 적합)

▶ 300평 - 매가 3억 6천만
2억 7천만

- ① 50평 - 매가 4천5백만 -(주택,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100평 - 매가 9천만원(주택,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15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062-382-5500

경매 교육 [기초, 특수 전문]

☆ 경매 추천 물건 ☆

1. 북구 일곡동 (1층 상가) (60평)
▶ 감평가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00만
2. 광산구 우산동 (4층 중 3층) (317평)
▶ 감평가 132억3천 → 최저가 1억4천900만
3. 북구 신안동 (병원) 토 195평 건 392평
▶ 감평가 14억5천300만 → 최저가 10억
4. 광산구 우산동 (4층 중 2층 상가) 실평수 121평
▶ 감평가 14억1천만 → 최저가 4억
5. 상무지구 (1층 근린상가) (토6,건20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6. 광산구 월계동. (3층중 2층) (부영아파트 앞)
▶ 감평가 3억3,400만 → 최저가 1억4,900만
7. 광산구 월계동. (3층중 2층) (부영아파트 앞)
▶ 감평가 2억3천700만 → 최저가 1억600만
8. 북구 용봉동 (주택) (토 45평,건63평)
▶ 감평가 2억800만 → 최저가 1억4천500만
9. 북구 운암동 (주택) (토50평,62평)
▶ 감평가 1억6,600만 → 최저가 1억6,600만
10. 동구 계림동 (상가주택) (토35평,51평)(재개발지역)
▶ 감평가 1억3,600만 → 최저가 1억3,600만

경매교육 하면서(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

- ① 초급 실전반 - (기초+실전)
- ② 중급 실전반 - (기초+실전+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매주 (월,수,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 분

(책상,컴퓨터 → 제공 / 주 1회 물건분석스터디)

010-6670-9800